지역 메아리

## 완주군 가을철 산불발생 제로화 총력

###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완주군이 가을철 산불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완주군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이 많아져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 전문 인력을 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앞서 감시초소, 무인감시카메라, 무전기,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에 대한 사전 정비를 마쳤다.

노후화로 인해 기동력이 약화된 산불진화차량은 대체해 신규 보강하면서 산림밀집으로 원거리지역인 고산 6개면 지역에 전진배치 하는 등 초기 대응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산림 인접농경지는 산불감시원 지원하에 안전하게 영농폐기물 공동소각을 실시해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 제8대 김제시의회

###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 실시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30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정활동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24회 제2차 정례회(2018.11.21.~12.20.)를 앞두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고 제8대 김제시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초선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 됐다.

이날 의원들은 제10대 전라북도 도의회 광역의원으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정활동연구소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양성빈 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사 실무기법과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실전사례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했고, 이밖에 의정활동의 정의, 발언/질의·질문 전략, 업무보고 심사 및 조례안 작성 및 심사에 대한 강의를 받았다.

온주현 의장은 "이번 자체 교육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의정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라며, 습득한 지식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농토피아 완주를 그리다

## 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포럼 개최 … 공동체, 전문가 등 100여명 참가

완주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포럼을 개최하고, 농토피아 완주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완주군은 문화강좌실에서 지난 29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포럼을 열고 사업추진방향과 w푸드테라피시스템구축사업계획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동체, 식품관련업체, 마을기업,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언을 맡은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재발과 사무관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정부 추진방향이 농촌의 자립적성장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혁신거점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주체육성, 창의적 사업발굴, 통합적 농촌발전을 주요추진과제로 추진한다는 것.

특히, 통합적 농촌발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마중물로 다양한 분야를 공간과 기능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용진박사는 완주의 자원인 로컬푸드1번지, 지역공동체활성화 선도모델지역, 농촌활성화 거점시설확보, 도농네트워크구축완료 등을 바탕으로 치유농식품활성화를 위한 w푸드테라피시스템구축을 역설했다.

완주군은 지난 29일 문화강좌실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포럼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 배민식 사무관은 기존 중간조직과 최대한 연계해 추진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차체 지원, 추진단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육성하는 플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에 한 공감대형성과 사업비 자부담과 기금납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중계단 위원인 임경수 위원, 김영일 위원, 완주군 추진단의 송광인 단장, 전효진 교수, 이근석 완주공동체지원센터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로컬푸드 성공신화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모델로 청년유입, 일자리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지난 8월 70억원을 확보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국회심의 대응 총력

## 김제시 전대식 부시장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공조 통해 단계별 대응 만전"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11월 1일부터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 대응에 나섰다.

전대식 김제시 부시장은 30일 국회를 찾아 김종회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인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사업(5억원)', '2019 국제종자박람회(9억원)' 및 '불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3억원)'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전북도 국가예산팀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 심의 일정과 동향 등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대식 부시장은 "지역현안사업들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단계별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성덕면 맞춤형 복지팀,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보일러 교체 사업'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지난 29일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하여 보일러 교체사업을 실시하였다.

성덕면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기동대원을 동원하여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어려운 세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중 기름보일러 교체가 필요한 세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모처럼 훈훈한 인정을 전달받은 대상자들은 "밤낮으로 추위가 시작되어 겨울을 걱정했는데,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제때 챙겨주니 감사한 마음이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기동대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여 희망이 사라지고 있던 가구에 쾌적한 환경을 선사해주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복지기동대원은"쾌적한 환경에서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사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봉동초는 지난 22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현지학교와 교육기관을 방문, 교류학습을 진행했다.

# 봉동초 APEC국제교육협력 프로젝트 마무리

## 완주군,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방문해 교류학습 전개

완주 봉동초등학교(교장 서남순)가 APEC국제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완주군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봉동초는 'Creative & SW education for 4th industrial rebolution'이란 주제로 지난 22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현지학교와 교육기관을 방문, 교류학습을 전개했다.

봉동초는 총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인도네시아에서 3박 4일간 Jakarta Indonesia Korea School와 교류해 인도네시아 문화체험 및 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2박 3일간 싱가포르에서 조롱새공원 및 센토사섬,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을 관람했다.

우선 봉동초는 인도네시아 Jakarta Indonesia Korea School과 교류를 통해 홈스테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교 수업을 통해 발명과 SW교육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앙클룽을 배워 아리랑을 연주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싱가포르에서는 조롱새공원에서 새의 부화과정 실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말레이 박물관에서 싱가포르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봉동초 서남순 교장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APEC 국제교육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다른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에게 큰 꿈을 키우게 된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더욱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봉동초 5학년 성현민 학생은 "이번 여행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어서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김제시 "공무원 법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는 30일 소속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김제시 공무원 법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처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지방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제시는 이번 교육을 위해 연 초부터 법제처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2018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강의는 법제처 김민정 사무관과 전라북도 법제협력관 김은영 서기관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적극행정 법제 실현 방안 등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설명하여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및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